

통일사상¹⁾의 시각으로 본 존재의 보편적 법칙에 따른 성(性)적자기결정권의 기준

문 상 희

선문대학교

〈요 약〉

개인의 성은 자신의 인격의 표현이며, 가정과 사회질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간은 누구나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자기운명결정권을 선택할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권으로서 성적자기결정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성적자기결정권에 아무런 기준 없이 성행동, 성관계가 가능하다면 개인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성적행위는 가정 붕괴와 사회 무질서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여성계의 반성폭력운동에서 ‘성폭력은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라고 규정을 지으면서 성적자기결정권의 용어가 화두로 시작되어 범조계에서 성문제의 판결을 위해 인용하는 용어가 되었다. 소유적 개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주의 철학적 사유는 성적자기결정권에 그대로 적용되어 개인의 신체와 재능은 철저하게 사회와 단절된 상태에서 개인이 선택한 다양한 성관계, 성행동은 개인의 자유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합리성으로 시민들에게 확대적용 되고 있다.

이 논문은 우리사회에서 성적자기결정권과 관련되어 야기되는 다양한 성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통일사상적 시각에서 존재의 보편적 법칙을 근거로 기존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들을 분석하고 그의 한계를 살펴보면서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안하려한다. 이 논문은 제안된 성적자기결정권의 기준에 따라 건전한 성의식과 성태도를 함양함으로써 긍정적이고 건전한 성행동이 우리사회에 정착하여 성적 일탈을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다.

핵심 주제어: 존재의 보편적 법칙, 성적자기결정권, 성의식, 성태도

- 1) 통일사상이란 하나님주의, 또는 두익(頭翼)사상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주의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핵심으로 하는 사상을 말하며, 두익사상이란 우익도 아니요, 좌익도 아닌 더 높은 차원에서 양자를 포용하는 사상을 말한다. 통일사상은 하나님아래 인류대가족주의이념을 실현함과 아울러 인류의 난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상이라고 말한다. 통일사상은 문선명 선생의 사상이며 이상현 선생이 철학적 체계로서 1973년에 정리하여 『통일사상요강』의 표제하에 출판되었다(『통일사상요강』, 서문에서).

I. 들어가는 글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성(性)적 존재이다. 개인의 성은 자신의 인격의 표현이며, 가정과 사회질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간은 누구나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자기운명결정권을 선택할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권으로서 성적자기결정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성적자기결정권에 아무런 기준 없이 성행동, 성관계가 가능하다면 개인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성적행위는 가정 붕괴와 사회 무질서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성이 내밀한 문제이고 성적자기결정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각기 성적 주체가 되어 자율적인 동의와 책임아래 다양한 성관계의 선택이 이루어질 때, 성규범의 객관적이고 보편적 기준이 없다면 성적 일탈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그 예가 스와핑²⁾의 경우이다. 건전한 성을 주장하던 사람이지만 한번 성적 일탈에 들어서면 성적 일탈을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삶의 습관으로 이어져서 가정파괴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³⁾

사회적 존재이면서 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성적자기결정권은 사회적, 그리고 개인, 두 가지 측면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한다. 인간 공동체의 사회적 관계에서 사회의 안정과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 사회가 개인에게 기대하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기준이 요청된다. 동시에 인간 개개인의 성적 자율성과 존엄성에 입각한 개인의 주관적 선택에 따른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도 인간 개개인이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개인의 삶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개인이 주관적인 선택을 하는 성적자기결정권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요청된다.

사회공동체의 인간관계에서 성적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청되는 사회적인 성규범이 있으며, 인간 개개인이 성적 행복감을 누리기 위한 성적자기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성규범이 있다.⁴⁾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회적, 개인적으로 동시에 적용되는 기준이 곧 존재의 보편적 법칙이다.⁵⁾

이 논문은 우리사회에서 성적자기결정권과 관련되어 야기되는 다양한 성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통일사상적 시각에서 존재의 보편적 법칙을 근거로 기존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들을 분석하고 그의 한계를 살펴보면서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

2) 스와핑은 영어로 swapping으로 표기하며, ‘교환하다, 바꾸다’를 뜻하는 swap의 명사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이후에 배우자를 바꾸어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인터넷사이트와 그 행위와 관련된 실제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면서 스와핑이 이슈화되었고, 이후 2003년에 국립국어원의 신어자료집에 “스와핑”이 수록되었다.

3) 배영기, 『결혼의 역사와 문화』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6), 97쪽.

4)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서울: 성화사, 1993), 394쪽.

5) 위의 책, 364-367쪽.

준을 제안하려한다. 이 논문은 제안된 성적자기결정권의 기준에 따라 건전한 성의식과 성태도를 함양함으로써 긍정적이고 건전한 성행동이 우리사회에 정착하여 성적 일탈을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다.

II. 기존의 성적자기결정권들에 대한 논의

이 연구에서 기존의 다양한 시각의 성적자기결정권 가운데 대표적으로 여성계의 반성폭력운동의 시각과 헌법의 인간상을 기초한 시각, 그리고 자유주의 철학의 시각을 선정하여 논의하려한다. 그 이유는 여성계의 반성폭력운동에서 ‘성폭력은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라고 규정지으면서 성적자기결정권의 용어를 가장 먼저 강조하기 시작하여 법조계에서 성문제의 판결을 위해 인용하는 용어가 되었다. 그리고 소유적 개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주의 철학적 사유가 성적자기결정권에 그대로 적용되어 개인의 신체와 재능은 철저하게 사회와 단절된 상태에서 개인이 선택한 다양한 성관계, 성행동은 개인의 자유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주장으로 일반시민들에게 확대적용 되고 있기 때문이다.⁶⁾ 기존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세 가지 시각에 대해 논의를 하고 각기 그 한계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여성계의 반성폭력운동에서 보는 성적자기결정권

한국에서 반성폭력운동은 1990년대 초에 성폭력의 문제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됨으로써 세 단계에 걸쳐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단계는 1991년에서 1993년까지 여성단체들이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시기이다. 1993년부터 1999년까지는 둘째 단계로서 성희롱문제의 사회적 이슈화와 더불어 여성운동의 성희롱관련 입법추진과 대학 내의 반성폭력운동이 본격적으로 확산 되는 시기이다. 세 번째 단계는 199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학 내의 반성폭력운동이 일반 시민운동으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⁷⁾

반성폭력운동이란 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무형, 유형의 강제적 행사를 저지하는 운동을 의미한다. 성폭력의 협의는 인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그 광의는 성희롱, 가정폭력까지 포함하여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포함한다.

90년대 초에 여성계가 ‘성폭력은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라고 규정한 연유는 기존 성범죄들의 가부장적 의미구성의 해체와 성폭력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⁸⁾

6) 박해진, 『형법상 성적자기결정권 개념에 대한 성찰』, 『법학연구』 제23집 (서울: 한국 법학회, 2006), 235쪽.

7) 신상숙, 『성폭력의 의미와 성적자기결정권의 딜레마』, 『여성과 사회』 제13호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1), 16쪽.

‘성폭력은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라고 주장한 것은 가부장제의 이중적 성규범에 따른 경우, 결혼한 아내는 자녀출산의 재생산의 도구로 여기고, 남성들의 성적 쾌락대상의 여성의 몸은 쾌락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모순된 이중적 성규범의 의미를 해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즉,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 사용은 재생산의 도구와 쾌락의 도구로 이중적으로 객체화된 여성의 몸을 주체화시키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반성폭력운동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의 용어사용은 성적 함의를 갖는 폭력의 범위를 확장하여 가정 내의 강간, 추행뿐만 아니라 성희롱을 포함하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침해를 망라한 ‘자신의 의사와 반하는 모든 성적 행위’에 대해 성폭력의 기준을 정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⁹⁾

반성폭력운동의 현대적 지향성은 성폭력방지의 지평을 넘어서 여성들의 다양한 성욕구, 성적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주체위치를 확보하는 성적 정체성을 누리기 위한 노력으로 나아가고 있다.

2. 헌법적 인간상으로 보는 성적자기결정권

1990년 9월 10일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헌법상 ‘성적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성행위 여부와 그 상대를 결정하는 권리로서 개인의 선택권, 행복추구권, 자기운명결정권을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개인의 인권으로 보았다. 헌법상 자기결정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인간이라면 자기에 관한 사항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다.¹⁰⁾

헌법질서가 예정하고 있는 인간상은 “자기결정권을 지니고 창의적이고 성숙한 인격으로서의 국민”, 또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한 인생관, 사회관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생활을 자신의 책임 하에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에서 고립된 개인이 아니며, 공동체에 속하지만 공동체와 관련 없는 단순한 구성원이 아니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고 공동체의 질서 속에 있으나 자신의 권리를 훼손당하지 않으면서 개인과 공동체와 상호연관 속에서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인격체를 전제한다.¹¹⁾

헌법재판소는 2003년 10월 20일에 헌법 제 37조 2항에 근거하여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간의 기본권이 제한 받을 수 있다고 간통죄를 명시한 형법 제241조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기본권이 아니라 사회에 부응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권리로서 설명되어진다.¹²⁾

8) 위의 글, 20쪽.

9) 신상숙, 위의 글, 22쪽.

10) 김강운,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의미』, 『법학연구』 제20집 (서울: 한국법학회, 2005), 161-162쪽.

11) 위의 책, 164쪽.

12) 박혜진, 앞의 글, 236쪽.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자신의 충분한 판단이나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장애인, 노약자, 미성년자 등은 인간의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합리적 주체’라는 헌법상의 인간상에 기초한 성적자기결정권에 의하면 이러한 요보호자들은 후견적, 보호적 대상일 뿐이므로 처음부터 같은 선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성적주체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밖에 없는 모순을 초래한다.

그러나 헌법 제10조는 국민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기본적인 인격권이 보장되므로 성적자기결정권의 주체를 충분한 판단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한정지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 동성애자, 성전환자, 성적 자유를 박탈당한 사회에서 소외당한 모든 이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이 주어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³⁾

3. 자유주의 철학에 기초한 성적자기결정권

자유주의 철학자 데카르트에 의하면 육체와 정신의 이원론의 기반에서 인간을 설명하고 있다. 인간은 육체와 정신이 분리된 실체로서 육체와 정신의 상호연관성을 명확하게 해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육체와 외부와의 관련성을 외면하는 자아 중심적 논리에 귀결한다.¹⁴⁾ 몸이 배제된 데카르트적 사유는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몸을 보지 못한다. 데카르트적 사유는 정신적 내향성이 몸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으며 세계의 외향성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¹⁵⁾

따라서 데카르트적 자유주의 사유는 성적자기결정권에 있어서 성적 행위가 육체적 침해인 동시에 정신적 침해를 수반할 수 있다는 사유가 배제되어 있다. 즉 정신적 육체적 상호주관성, 내지 상호신체성이 제거된 형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몸을 배제하게 되어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유권적인 것으로 축소되어버린다.

각기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사회관에 따라 공동체내에서 자신의 성적 가치관과 지향성이 수립되고 이에 따른 사생활 영역에서 성적 결정을 내린 것에 의해서 책임을 진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행사하는 자유주의적 성적자기결정권은 성의 자기 개인 소유화이상의 논의는 할 수 없게 된다.

자유주의 철학에서 보는 성은 오로지 나의 것이고 나의 완전한 자유에 의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허용이 되며, 내가 다른 사람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나의 성은 완전히 나의 것으로서 누릴 수 있다는 ‘성의 개인주의와 소유주의’ 이상이 아니다. 이러한 사고는 부부강제추행을 인정하는 판례에서 부부간의 성관계도 완전히 개인주의와 소유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부부강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게 된다.¹⁶⁾

13) 위의 글, 237쪽.

14) 오생근, 『데칼트, 들뢰즈, 푸코의 육체』, 『사회비평』 제17호 (서울: 사회비평사, 1997), 100쪽.

15) 정화열, 『생태학과 보살핌의 윤리』, 『녹색평론』 7/8월호 (서울: 동녘, 1996), 35쪽.

자유주의 철학자 맥퍼슨은 소유적 개인주의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신체와 재능에 한해서 완전히 자신의 소유이며, 그러한 특성은 사회와 무관하며, 개인이란 도덕적 완벽성이 있는 것이 아니며, 더 큰 사회전체의 부분도 아니라고 강조한다.¹⁷⁾ 따라서 개인의 신체와 재능에 한해서 온전히 자신의 소유로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맥퍼슨의 자유주의적 해석의 틀 안에서는 성적 가해자와 피해자의 각각의 입장에서 극열하게 충돌한다. 남성자신의 성욕구의 추구하고 그 결정권을 주장하는 반면에 여성자신의 성적 욕구의 추구하고 그 결정권이 극열하게 충돌하는 논리적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된다.¹⁸⁾ 여성이 강간과 성폭력의 피해자로서 주장하면 남성은 여성과 합의한 성관계이며 친밀감의 표현에 대하여 주장하면서 강간 사실 자체를 부정하면서 맞선다. 이러한 경우 법이 누구의 입장에서 판단을 내릴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자유주의 시각의 성적자기결정권은 온전히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해 선택되는 계약적 관계의 구속력만 있을 뿐이지 사회적 맥락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므로 자유주의 시각의 성적자기결정권은 이러한 점에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Ⅲ. 기존의 성적자기결정권들의 한계

1. 반성폭력운동의 성적자기결정권의 한계

여성계의 반성폭력운동이 주장한 성적자기결정권은 재생산과 쾌락의 도구로 객체화된 여성의 몸을 주체화시키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가부장제의 이중적 성규범의 의미를 해체하려는 노력은 기울였으나 그것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접근을 하지 못하였다.

가부장제의 이중적 성규범의 적용은 남성들이 여성에게만, 특히 자신의 아내와 딸들에게는 정절이데올로기를 적용하고, 남성자신의 성적 노리개로서의 여성들에게는 무관한 정절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성은 그 집안의 혈연을 이어 가풍의 계대를 이어갈 존재로서 좋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아내가 정절을 지켜야 하며 딸은 시집의 계대를 이어야 할 재생산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반면에 남성자신은 성 욕구 충족을 위해서 기방의 여성들을 자신의 쾌락의 도구로 여기면서 풍류객으로서 남성자신들을 미화시킨 것이었다. 가부장제의 이중적 성규범의 적용은 남성들이 가부장제의 체도를 이용하여 여성들을 재생산의 도구와 쾌락의 수단으로 여기는 남성들의 잘못된 성의식이 문

16) 이상돈, 「부부강간의 인정 - 남성주의와 여성주의의 사이」, 『월간 넥스트』 9월호 (서울: 동녘, 1994), 56쪽.

17) Macperson, C. D, 「소유적 개인주의의 정치이론」, 『인간사랑』, 이유통 역 (1991), 19-26쪽; 박혜진, 앞의 글에서 재인용. 236쪽.

18) 박혜진, 앞의 글, 237쪽.

제였으므로 남성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것이었다. 남성들이 여성과 마찬가지로 정절을 지키며 가정에 충실한 남편과 아버지 역할을 다하는 성의식, 성태도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절의식과 정절태도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절을 여성에게만 강요하는 남녀불평등한 성규범 적용이 문제인 것이다. 남성들도 정절의 성규범의 계율 안에서 가정을 지킬 때, 남녀 평등한 정절의식과 태도에 의해 가정의 성적 안정과 질서가 수립될 수 있다. 남녀모두가 평등하게 존재의 보편적 법칙을 따르면 가정과 사회에서 가부장제의 이중적 성윤리적용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둘째, 반성폭력운동이 성폭력의 의미를 확대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성적 행위’에 대해 성폭력의 기준을 정한 것은 고무적이었다.¹⁹⁾ 그러나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여 가해자의 범주를 넓힌 것만으로 여성의 몸을 지키려는 것은 소극적인 대처방안이다. 넓은 범주의 가해자의 수가 늘어나서 법적 처벌을 강화한다 해도 근본적인 대처 방안이 될 수 없다. 법적 처벌은 행위의 결과를 놓고 벌을 가하는 것이지 행위의 동기나 이유에 접근하는 대처가 아니기 때문이다.

성폭력의 적극적 대처방안은 가해자의 의식이 성적자기결정권의 긍정적 행사로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성적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는 동기부여의 가치관교육과 가치관 쇄신운동으로 가능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여성의 몸을 지킬 수 있는 적극적 대처방안은 남성의 성의식과 성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성가치관 전환운동이다. 가치관 수립을 위한 시민운동과 교육이 유아부터 발달단계별로 눈높이에 맞게 이루어지면 성폭력 예방운동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셋째, 반성폭력운동의 한계는 성폭력방지의 지평을 넘어서 여성들의 다양한 성 욕구, 성적 자유의지로 자율적인 주체위치를 확보하는 것이라고²⁰⁾ 말한다. 이 의미는 남성들이 자율적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한다면 여성도 성적자기결정권을 성적 주체자로서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 없는 성적자기결정권에 의해 자기 스스로 선택한 상대와의 성관계는 다양한 성적 사회문제를 파생시키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 예로 스와핑, 혼전동거, 그룹 프리섹스, 혼외성관계, 등의 확산은 가정과 사회를 붕괴시키는 성문제들이다. 이에 남성들이 그러하듯이 여성도 똑같이 성 욕구를 지니고 있으니 여성들의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다양한 성행위, 성관계를 객관적 기준 없이 행한다면 우리 가정과 사회의 붕괴를 누가 막을 것인가? 남성과 여성이 함께 건강한 가정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보편적 기준에 의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도록 적극적인 가치관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반성폭력운동의 객관적, 보편적 기준이 없는 성적자기결정권의 영향력이 청소년

19) 신상숙, 앞의 글, 22쪽.

20) 같은 글, 22쪽.

들에게까지 미치게 되므로 다양한 청소년들의 성관련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윤가현, 김한경, 김원중의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청소년의 경우, 사고능력, 이해능력, 판단능력을 가진 성숙도를 지닌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문제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리, 즉 자율성을 부여하여 청소년의 성주체성을 부여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²¹⁾

1996년에 개최된 세계여성대회 실무위원회에서도 청소년들을 성적 주체자로 인정하였으며 미국심리학회와 미국과학재단에서는 낙태결정에서 청소년들이 성인에 준하는 자기결정능력이 있다고 하는 공식적인 견해와 학부모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교육이 청소년 성교육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²²⁾

객관적, 보편적 기준이 없는 성적자기결정권에 의하여 아직 올바른 가치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성행위는 학업부진, 원치 않는 임신, 낙태, 미혼모 증가, 그리고 다양한 성병의 확산과 신성한 결혼의 의미를 잃게 되어 그 청소년들의 미래에 가정 붕괴 현상까지 초래하게 된다.²³⁾

2. 헌법의 인간상에 기초한 성적자기결정권의 한계

첫째, ‘합리적 주체’라는 헌법상의 인간상에 기초한 성적자기결정권에 의하면 보호자를 요하는 자들은 후견적, 보호적 대상일 뿐이며 애초에 합리적 주체와 같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적주체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밖에 없는 모순이 있다. 그러나 헌법 제10조는 국민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기본적인 인격권이 보장되므로 성적자기결정권의 주체를 충분한 판단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한정지을 수 없게 된다. 장애인, 동성애자, 성전환자, 성적 자유를 박탈당한 사회에서 소외당한 모든 이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이 주어져야한다는 입장에 서있다.²⁴⁾ 그러므로 헌법상의 인간상에 기초한 객관적, 보편적 기준이 없는 성적자기결정권은 헌법 내에 배치되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둘째, 성적자기결정권에 의한 성문제와 관련하여 남성적 가부장제의 전통적 시각, 페미니스트시각, 현대 자유주의적 시각이 혼재되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혼란 속에서 입법자가 수법자의 일반적 의식에 합치되는 입법을 하거나 사법부가 이를 존중하는 사법적 판단을 하기란 매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21) 김원중, 「청소년성문제의 이해와 지도」, 『교육이론과 실천』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0), 242-251쪽; 김한경, 「가족의 출산건강 및 성문제에 관한 가족복지적 개입전략」, 『한국가족복지학』 창간호 (한국가족복지학회, 1999), 105-132쪽; 윤가현, 「성과 성의식의 변화」, 『역사비평』 겨울호, 346-358쪽.

22) 박광배, 『아동·청소년의 성적행위 결정능력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38쪽.

23) 노향옥,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상담 프로그램개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36쪽.

24) 박혜진, 앞의 글, 237쪽.

셋째, 과거에는 강제나 강요에 의한 성폭력만이 문제되는 협소한 분야이었으나 현재에는 동성애, 스와핑, 성전환자, 등도 포함하는 거대한 사회적 이슈로서 성적자기결정권의 사법적 문제가 되어 객관적, 보편적 기준이 없는 성적자기결정권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넷째, 일반적으로 성적 사항은 사적으로 내밀한 사안이므로 법이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법과 도덕은 그 역할과 목적에 따라서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다. 도덕적 가치는 도덕적으로, 법적 문제는 법적으로, 각기 실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헌법의 인간상에 기초한 성적자기결정권의 극복은 존재의 보편적 법칙의 기준에 따른 성적자기결정권 재해석'의 법적도입을 통한다면 여성에 대한 성적 침해문제 뿐만 아니라 남성에 대한 성적 침해문제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자유주의 철학의 성적자기결정권의 한계

첫째, 자유주의 사유는 성적자기결정권에 있어서 성적 행위가 육체적 침해인 동시에 정신적 침해를 수반할 수 있다는 사유가 배제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상호주관성, 내지 상호신체성이 제거된 형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몸을 배제하게 되어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유권적인 것으로 축소되어버리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사생활의 영역에서 각기 개인이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행사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은 성의 자기 개인 소유화이상의 논의는 할 수 없게 되는 한계가 있다.

둘째, 자유주의 철학에서 보는 성은 완전히 나의 것으로서 누릴 수 있다는 '성의 개인주의와 소유주의' 이상이 아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성관계도 완전히 개인주의와 소유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부부공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게 된다.²⁵⁾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부부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성적자기결정권으로 가정의 평화와 안정과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셋째, 자유주의 철학의 성적자기결정권의 또 다른 영역의 한계는 성적 가해자와 피해자의 각각의 입장에서 극열하게 충돌한다는 것이다. 남성자신의 성욕구의 추구하고 그 결정권을 주장하는 반면에 여성자신의 성적 욕구의 추구하고 그 결정권이 극열하게 충돌하는 논리적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된다.²⁶⁾ 여성이 강간과 성폭력의 피해자로서 주장하면 남성은 여성과 합의한 성관계이며 친밀감의 표현에 대하여 주장하면서 강간 사실 자체를 부정하면서 맞선다. 이러한 경우 법이 누구의 입장에서 판단을 내릴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한계점에 도달한다.

넷째, 자유주의 시각의 성적자기결정권은 온전히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해 선택되는 계

25) 이상돈, 「부부간의 인정 - 남성주의와 여성주의의 사이」, 『월간 넥스트』 9월호 (서울: 동녘, 1994), 56쪽.

26) 박혜진, 앞의 글, 238쪽.

약적 관계의 구속력만 있을 뿐이지 사회적 맥락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²⁷⁾ 이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성문제는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사회의 성적 무질서를 방관하는 태도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다섯째, 성적자기결정권에서 선택한 상대와 성관계나 성행동은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행위이므로 그 출발부터 두 사람 이상의 공동체로서 출발하는 것이다. 또한 그 결과도 당사자들과 가족공동체, 그리고 사회공동체에 영향이 미치게 된다. 자유주의적 성적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성행위, 성관계, 모두를 사적영역으로 간주하였으나 두 사람 이상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성행동은 공적 영역문제이므로 그 주장의 모순을 나타내는 한계가 있다.

보편적 법칙에 의하면 개개인 모두가 개성진리체이면서 연체이며, 개체목적과 전체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존재, 보존, 번식, 발전하게 되어 있다. 자유주의적 성적자기결정권은 모든 성행동을 사적문제로서만 다루기 때문에 개체목적만을 위해서 성적 자기결정을 하는 성행동은 스와핑, 혼전성관계, 후리섹스, 집단 혼음, 등의 사회적 성문제를 수반하게 되었다.

IV. 존재의 보편적 법칙에 따른 성적자기결정권의 기준

위에서 논의한 기존의 성적자기결정권의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필자는 통일사상적 시각으로 본 존재의 보편적 법칙에 따른 성적자기결정권의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존재세계의 모든 존재와 개인, 가정 그리고 사회가 존재, 작용,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존재들을 주관하는 우주의 보편적 법칙, 즉 자연법칙²⁸⁾과 가치법칙²⁹⁾을 준수함으로써 가능하다. 자연법칙은 존재하는 우주와 자연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칙인 동시에 인간의 몸이 따라야하는 법칙이며, 가치법칙은 인간의 마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칙이며, 이 법칙은 규범의 기준이 된다.³⁰⁾ 규범의 기준을 학교에 적용하면 교사-학생의 규범이 되고, 회사에 적용하면 기업의 규범이 될 수 있다. 규범의 기준은 인간 사회 공동체의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다. 규범의 기준을 성에 적용하면 성규범이 된다. 이 논의에서는 대표적으로 여섯 가지의 존재의 보편적 법칙들을 소개하고자 한다.³¹⁾ 이

27) 김근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99-102쪽.

28) 통일사상은 존재세계의 우주를 포함한 모든 존재들의 작용, 발전, 번식을 지배하는 우주의 보편적 법칙이 있다고 한다. 그 보편적 법칙은 우주의 자연계와 인체를 지배하는 자연법칙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 법칙을 천도라고도 말한다.

29) 통일사상은 보편적 법칙 가운데 인간사회에만 작용하는 법칙이 있는데 인간의 마음을 주관하는 법칙을 가치법칙이라고 설명한다. 이 법칙을 천도라고도 말하고 규범의 원리라고도 표현한다.

30) 통일사상연구원, 앞의 책, 366쪽.

논의는 존재의 보편적 법칙들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의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다.

1.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때는 존재의 성장과정의 법칙에 따른 ‘때’의 기준에 따라야한다.

통일사상에 의하면 모든 존재는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 인간의 성도 예외가 아니다. 성관계를 언제 할 것인가는 성적자기결정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성관계의 때’의 기준은 성장과정의 법칙에서 도출된다.

인간의 ‘성관계의 때’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으로 가족과 독립하여 스스로를 책임지고 일정한 성장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독립된 공동체를 영위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되는 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임신-출산-양육의 준비와 부모 될 준비가 되어 가족과 친지, 그리고 지인들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는 ‘결혼할 때’까지 성관계를 기다려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성관계는 임신-출산-양육의 잠재적 문제가 항상 내재하고 있으므로 결혼 후에 성행위, 성관계를 갖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건전한 것이다. 결혼 후의 임신은 준비된 부부가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기쁨을 안고 온가족이 환영하고 축복해주는 환경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때 그 아이의 미래는 밝고 아름다운 삶을 키워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의 맥락에서 학교성교육은 청소년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돕기 위해서 피임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피임성교육은 피임도구를 사용하여 성병과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성을 모색하는 조건부 금욕모형의 성교육이다. 청소년들에게 “성관계를 하지 말라. 그러나 안전한 성의 방도가 있다”는 절충적 가르침은 모순적 두 논리로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성도덕, 성윤리에 어긋나는 교육일 뿐만 아니라 성적자기결정권의 선택과 그 결과의 문제는 청소년 스스로에게 맡겨버리는 무책임한 교육이다.

‘때의 원리’의 기준으로 볼 때, 청소년성관계에서 안전하고, 미래가 보장된 건전한 성관계는 없다. 모든 성관계는 피임을 하더라도 임신, 낙태, 출산, 양육, 성병의 문제가 잠재적으로 따라다닐 뿐만 아니라 ‘때의 기준’에 어긋나는 행위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의가 피임교육이 전적으로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피임교육 이전에 보편적 법칙에 따른 성적자기결정권을 교육해야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성적자기결정권에 의해 피임하면서 자율적으로 성관계를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정의 법칙에 따라서 결혼 때까지

31) 문상희, 『존재의 보편적 법칙에 따른 순결한 성의 구현』, 『종교교육학연구』 30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8), 182-189쪽. 필자는 이 논문에서 존재의 다양한 법칙들 가운데에서 대표적으로 6가지의 보편적 법칙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 글을 참조바람.

성관계를 절제하여 기다려야한다는 교육이 우선되어야한다.

청소년 성교육자, 앤랜더스는 그의 저서에서 10대청소년들의 심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³²⁾ 10대 청소년들이 여자 친구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이기심의 발로가 강하다는 것이다. 그는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성관계는 당사자들의 자제심과 양식의 결여를 보여주는 것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³³⁾

성장과정의 법칙은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준거기준이 되며, 성행위 거부의 이유가 된다.

2. 성적자기결정권의 두 번째 기준은 존재의 상대성의 법칙³⁴⁾에 따른 ‘누구’와 성관계를 갖느냐의 기준이다. 그것은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남편과 아내의 배우자관계이다.

통일사상에서 보는 시각은 모든 존재는 우주존재법칙에 따른 쌍쌍제도에 의해 양성(陽性)과 음성(陰性)의 상대성으로 존재한다고 말한다. 원자는 양자와 전자, 분자는 양이온과 음이온, 식물은 수술과 암술, 동물은 수컷과 암컷, 인간은 남자와 여자의 상대적 관계를 각각 가지면서 존재, 작용, 발전한다.

인간의 경우, 남녀의 상대적 관계가 “1: 1”의 일부일체제의 관계만을 허용하는 것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사랑의 속성 때문이다.³⁵⁾ 사랑의 속성은 사랑하는 남녀관계에서 1퍼센트도 다른 이성이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남녀의 사랑관계는 절대적으로 배우자만을 사랑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서로가 절대적으로 유일하고 불변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원한다. 사랑의 속성을 이루는 남녀관계는 신뢰감이 형성되며 정서적, 심리적으로 안정된다.³⁶⁾ 결혼한 부부관계에서 남자나 여자가 혼외정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부부관계의 신뢰감이 무너지게 되며 불신과 대립, 그리고 갈등관계가 시작된다.³⁷⁾ 상대성의 법칙은 성적자기결정의 기준이 되어 결혼한 배우자 외의 성관계를 거부하게 된다.

존재의 보편적 법칙에 의하면 결혼을 거부하고 독신생활을 영위하면서 성적 쾌락을 즐

32) 앤 랜더스, 『10대 사랑과 순결의 대화』, 오경수 역 (서울: 가정문고사, 1981), 52-53쪽.

33) 위의 글, 53쪽.

34) 남녀의 관계가 1: 1의 상대성의 원리대로 살 때 고통과 갈등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원리 역시 남녀의 삶을 신뢰감이 형성되는 행복으로 안내하며, 성규범의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할 이유를 말해주고, 성적 자기 결정의 기준을 제시하며, 이 원리대로 살아야한다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35) 문선명, 『평화메시지 10』 (서울: 성화사, 2009), 169-171쪽 참고. 사랑의 속성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36) 한국가족학회, 『가족학』 (서울: 하우출판사, 1999), 104-107쪽.

37) International Education Foundation, *Building Healthy Marriages* (Moscow: IEF, 2002), pp. 35-42 참고바람.

기는 경우, 상대성의 원리를 벗어난 입장으로 보는 것이다. 결혼이전이나 이후에 배우자 외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관계는 상대성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사랑의 속성의 원칙과 성기관의 주인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엇바뀌었다는 원칙에 따르는 것이다. 성기관이 자기 몸의 일부이므로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나 성기관의 주인은 상대배우자이다. 만일 성기관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면 자신의 성기관을 배우자와 상관없이 누구와 사용해도 상대배우자는 마음이 상하거나 배신감이 일어나지 않아야한다. 배신감이 일어나는 이유는 성기관의 주인이 서로 엇바뀌있는 상대성의 원리에 의한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 에릭 후름(Erich Fromm) 역시 상대성의 원리에 따르는 일부일처제의 남편과 아내의 성애에 관하여 한 사람과만의 결합을 갈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³⁸⁾ 프롬은 사랑의 대상에서 형제애는 동등한 자들의 사랑이고, 모성애는 무력한 자에 대한 사랑이며, 형제애와 모성애는 각기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한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사랑과 대조적인 것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애’라고 설명하면서 성애는 완전한 융합, 곧 다른 한 배우자와 온전히 결합하고자 하는 갈망이라고 말한다.

이렇듯 ‘사랑의 속성’과 ‘성기관의 주인은 배우자’라는 근거에 의하여 두 남녀관계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면 결혼 안에서의 성관계가 가장 안전하고 만족한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스와핑(Swapping)은 ‘부부의 성을 교환’하면서 집단적으로 성관계를 이루는 성적 일탈 행위이다. 남편과 아내가 사전에 합의를 전제로 하는 부부성 교환의 집단적 성관계로서 우리사회의 일탈된 성관계의 대표적 예이다. 성적자기결정권의 기준, ‘상대성의 법칙’으로 보아 결혼 전에 있는 청소년 성관계역시 성규범의 원리를 벗어난 잘 못된 성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동성애행위 역시 쌍쌍제도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닌 동성끼리의 성관계이므로 성규범의 기준을 벗어난 성적자기결정권의 성행동이다. 트랜스젠더 경우도 자신의 성지향성에 따라 생득적, 생물학적 성을 스스로 바꾸어서 성기관의 주인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엇바뀌있는 존재법칙에서 벗어난 성지향성이다.

우리사회에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 성적 소수자의 인권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개성진리체로서 개개인의 삶의 스타일이나 지향성이 어떠하든지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존중해야한다. 그러나 그 행위가 보편적 법칙을 어기는 행위라면 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법의 인간상에서도 인간은 누구나 행복추구권이 있으며, 선택권이 있다하여 남에게 혹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 그 예가 2003년 10월 20일에 헌법 제37조 2항에 근거하여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38) Erich Fromm, 『사랑의 기술』, 황문수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2004), 88쪽.

에는 인간의 기본권이 제한 받을 수 있다고 결정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기본권이 아니라 사회에 부응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권리로서 설명되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성애행위는 자녀의 재생산이 불가하므로 역사의 계대가 이어질 수 없으므로 역사를 단절시키는 해악이기 때문에 비록 동성애자 자신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인권을 존중받아야 하며 존중해야하지만 동성애행위자체가 정당화되기 어렵다. 우리사회에 무자녀문제로 인한 인구감소문제가 미래사회의 심각한 경제난과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로서 작용하여 해악이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것이다.

3. 성적자기결정권은 수수법칙(授受法則)에 따른 상호교류하며, 보완적이고, 의존적으로 원만성, 조화성, 원활성의 관계를 이루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가능하다.

통일사상에 의하면 모든 존재는 개성진리체인 동시에 연체(聯體)이기 때문에 주체와 대상이 일정한 목적을 중심으로 상대기준을 조성하면 원만하고 조화로운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존속, 작용, 변화, 발전한다.³⁹⁾ 이러한 수수작용은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 공동목적에 집중하고 상호교류하며, 상호보완적이고, 상호의존적으로 원만성, 조화성, 원활성이 이루어진다. 수수작용은 상대에게 먼저 위해주면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지 않아도 돌아오는 원리이다.

인간의 성 역시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남녀는 각기 남성성으로서 여성성으로서 다른 성을 가지고 참사랑의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 상호보완적이고, 의존적이며 교류적인 수수작용을 하며 합일되는 것이다. 수수작용에 의한 남녀의 사랑과 성관계는 자신이 위함을 받기 이전에 먼저 상대를 위해주려는 노력과 배려에 의해 원만한 인격관계와, 원만한 성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사랑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남녀관계에서 수수작용이 잘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일정한 공통요소가 중심이 되어서 상대기준이 조성되어야한다.⁴⁰⁾ 일정한 공통요소를 중심한 수수작용은 반드시 일정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결혼한 부부의 경우, 부부의 사랑이 중심이 될 때 그 결과는 부부통일체, 혹은 신생체가 나타난다. 통일체란 부부사랑이 성숙되는 인격체로서 신뢰감이 돈독해지고 부부의 마음과 몸이 일체를 이루게 된다는 의미이며, 신생체란 새로운 개체, 즉 자녀를 의미한다.

부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의 터전 위에서 더 내밀한 것은 성의 합일의 관계이다. 성

39) 통일사상연구원, 앞의 책, 84쪽.

40) 통일사상연구원, 앞의 책, 85쪽. 사랑이 공통요소가 될 수 있고 가치관이 공통요소가 될 수 있으며, 취미생활이나 성격이 공통요소가 될 수 있다. 다양한 공통요소를 중심으로 부부가 합의를 이루어 수수작용을 이룸으로써 서로 발전하는 것이다.

은 바로 생식기의 합일의 관계이다. 생식기의 합일을 통하여 반쪽으로 나누어진 남녀는 비로소 마음과 몸 모두가 하나로 합일되어 부부사랑의 완성이 가능한 것이다.⁴¹⁾ 남녀의 생식기가 다른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목적은 서로 협조적이며 상호의존적으로서 조화롭고 통일된 사랑의 상호작용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부부간의 성행위나 성관계를 통하여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부부간의 신뢰감을 토대로 하여 친밀감을 돈독히 하고 더욱 깊은 사랑을 키워가는 촉진제 역할로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며, 태어나는 자녀를 위하여서이다. 사랑이란 타인격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여 상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의 수수작용(授受作用)이 필요하다. 이러한 희생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혼전순결과 혼후 정절을 지키려는 자율적이고 주체적이며,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지의 성적자기결정권이다.

4. 성적자기결정권의 네 번째 기준은 성관계의 분명하고 동일한 목적성과 중심성이 있어야 한다.

통일사상에서는 존재하는 주체와 대상관계에 있는 두 요소는 반드시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중심으로 수수작용 한다.⁴²⁾ 만일 두 존재가 목적이 상반된다면 갈등과 대립의 관계로서 수수작용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⁴³⁾

인간의 성은 남녀 간의 참사랑관계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수작용의 중심에 참사랑을 두고 남녀의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일에 어느 한쪽이 배우자 외의 성관계를 한다면 목적성이 다르기 때문에 남녀관계는 갈등이 시작되게 된다. 남녀관계에서 어느 한 쪽이 목적성의 법칙을 벗어났기 때문에 두 사람의 신뢰를 토대로 하는 사랑관계가 무너지게 된다. 목적이 서로 다른 부부는 삶의 내용이 상반되므로 그 마음속에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형성되어짐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남녀공동체 뿐만 아니라 가족공동체, 그리고 사회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면서 원만하고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려면 반드시 공동체구성원의 목적이 동일해야하며 그 중심에 상대를 위하고 전체를 위하는 사랑이 수립되어야한다. 그 중심에 상대를 위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이익이 자리 잡게 되면 공동체의 구성원 관계는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에 얽히어 대립과 갈등으로 혼란된 관계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41) 피터싱어 역음, 『규범윤리의 전통』, 김성한·김성호·소병철·임건태 옮김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5), 15-16쪽 참고.

42) 통일사상연구원, 앞의 책, 222쪽.

43) 부부관계에서 자녀를 몇 명 낳을 것인지, 집은 언제쯤 마련할 것인지, 시부모를 모시고 살 런지, 부부가 맞벌이일 경우 가사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나눌 런지, 한 달에 외식은 몇 번을 할런지, 등의 크고 작은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여 부부가 함께 노력하는 가정이 화목하고 발전하는 가정이 될 수 있다.

때 반드시 두 사람의 관계에서 동일한 목적과 참사랑이 중심이 되어 성행위나 성관계를 결정해야하는 것이다.

만일 어느 한 쪽에서 제3의 이성과 성과 사랑을 나눈다면 성규범의 목적성과 중심성의 원리를 파계하는 것이다. 성규범의 기준을 파계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달콤하고 행복한 감정에 빠질지 모르나 결국에는 갈등과 번민의 고통 속에서 머물게 된다. 부부관계는 언제나 달콤한 관계가 아니다. 결혼할 때, 이상적인 기대를 갖지만 현실 문제에 부딪치면서 역할 갈등, 성격 차이, 살아온 배경의 차이, 가족들과의 갈등, 등으로 어려움에 부딪친다.

목적과 중심이 동일한 건강한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한쪽이 부족하면 그것을 상대가 채워주고 보완해주기 때문에 언제나 균형을 이루는 부부가 되어 함께 만족을 느낀다. 또한 능력의 차이를 초월하여서 상호간에 돕는 사랑의 힘에 의해서 만족감을 같이 체험하게 된다. 목적과 중심이 동일한 부부는 분노나 기쁨으로 인하여 감정이 고조되어 흥분하더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한계선(限界線)을 지킬 줄 안다.⁴⁴⁾

목적성과 중심성이 동일한 부부는 상대의 자율성과 선택을 존중한다. 삶은 선택의 연속으로 이어지는데 자신이 선택한 결과나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질 줄 알고 상대의 선택에 대해서도 자신이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입장에서 존중하고 믿어주면서 서로 융화하면서 하나 되어간다.

5. 성적자기결정권의 다섯째 기준은 성행위와 성관계의 질서성과 위치성이다.

통일사상에 의하면 존재하는 개체는 반드시 각각의 위치, 즉 존재위치를 가지고 있다.⁴⁵⁾ 각 개체의 위치는 질서를 위한 것이며 그 존재가 그 자체의 위치를 잘 지킴으로써 전체의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자연의 우주질서는 종적질서와 횡적 질서가 있다. 종적질서는 미시세계의 원자로부터 천체에 이르는 질서이며, 횡적 질서는 태양을 중심한 아홉 개의 혹성, 외의 배열이다.⁴⁶⁾ 존재하는 한 개체는 개성진리체이면서 동시에 연체이기 때문에 대상 위치에 있는 동시에 주체 위치에도 있게 된다. 그 결과 수많은 개체들은 상하, 전후, 좌우로 연결되면서 위치의 계열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위치의 계열이 질서이다.⁴⁷⁾

44) 김효신 · 김인옥 · 안혜숙 · 임선영, 『결혼학』 (한국웨딩학회 편: 도서출판 구상, 2010), 162-165쪽.

45) 통일사상연구원, 앞의 책, 223쪽.

46) 우주의 종적질서는 달(위성)과 지구(혹성)가 대상과 주체의 관계로 수수작용(授受作用)한다. 지구는 태양과 수수작용하여 다른 혹성과 태양계를 형성한다. 태양은 다른 항성과 수수작용하여 은하계를 형성한다. 은하계는 다른 많은 은하계와 더불어 우주의 중심부와 수수작용을 하여 우주전체를 형성한다. 이때, 달(위성), 지구(혹성), 태양(항성), 핵 항성계, 우주의 중심으로 이어지는 계열이 우주의 종적질서이다. 우주의 횡적 질서는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등 아홉 개의 혹성이 횡적으로 질서 있게 배열하고 있다. 태양을 중심으로 혹성간의 배열이 태양계의 횡적 질서이다.

47) 문상희, 앞의 책, 181-183쪽에서 연체적 존재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있으므로 참고 바람.

통일사상에서는 가정의 질서는 우주질서의 축소형이며, 가정질서의 확대형이 우주의 질서라고 말한다.⁴⁸⁾ 손자-자녀-나(부부)-부모-조부모의 질서는 종적질서요, 부모를 중심으로 한 형제자매들은 횡적 질서이다. 부부는 가정의 질서의 중심의 위치에 있다. 부부 관계의 근본은 사랑과 성의 관계이며 사랑과 성의관계란 한 쌍의 관계이며, 한 쌍의 관계는 사랑을 중심으로 부부의 생식기의 합일의 관계를 의미한다.⁴⁹⁾

그러므로 사랑과 성의 관계에서 어느 한 배우자가 혼외의 다른 쌍의 관계를 이루게 되면 그 부부의 위치를 벗어나게 되어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다. 부부관계의 질서가 무너지면 그 가정전체의 질서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위치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성적자기결정권은 존재의 보편적 법칙을 벗어난 성행동인 것이다.⁵⁰⁾

가족관계의 화목은 조부모, 부모, 자녀관계의 3대권을 중심으로 부모사랑, 부부사랑, 자녀사랑, 형제자매사랑의 4개 영역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가족원 모두가 서로 참사랑을 주고받는 데서라야 가능하다. 가정에서 4대 사랑의 경험을 한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사회에 진출하게 될 때에 건전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사회를 발전시키는 지도자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6. 여섯 번째 성적자기결정권의 기준은 상호의존적 계층성의 원리에 따른 연체로서 개체목적과 전체목적의 이중목적의 수행하는 것이다.

통일사상은 수많은 차원으로 연계된 모든 존재는 이중목적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⁵¹⁾ 이중목적이란 개체목적과 전체목적의 목적을 말한다. 전체목적이란 호혜적(互惠的), 이타적(利他的) 작용, 혹은 행위를 의미한다. 광물질은 그 자체가 존재하기 위한 개체목적의 존재이며 더 나아가서 더 큰 존재 즉, 식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전체목적의 존재하고 작용한다. 식물은 식물개체와 더 큰 전체의 동물을 위해, 동물은 동물개체와 더 큰 체계의 인간을 위해, 인간개인은 개체의 존재목적과 가정을 위해, 가정은 가정의 존재목적과 사회를 위해, 사회는 사회의 발전과 더 큰 국가를 위해, 국가는 국가 개체와 더 큰 범위의 세계를 위해, 세계는 세계자체와 천주를 위해, 천주는 천주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위해 존재하며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인간은 자신의 개체와 타자와의 연체로서 각기 그 작용을 다 할 때 가치가 들어난다. 자연세계를 포함한 존재세계의 모든 존재가 개체목적과 전체목적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존

48) 통일사상연구원, 앞의 책, 218-219쪽.

49) 문선명, 앞의 책, 168-176쪽.

50) 가정의 구성원들의 자기 위치가 정해져있으며 그 위치에 따라 의무와 권한이 다르다. 그러므로 각 구성원이 그 위치에 맞는 역할을 함으로써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다. 질서성과 위치성의 법칙도 순결한 삶을 위한 기준, 이유, 안내,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51)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 (서울: 성화사, 1993), 52쪽.

재하고 번식하고 발전하듯이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개체와 연체로서 그 목적을 각기 잘 수행할 때 질서와 안정, 그리고 발전을 하도록 우주공법이 운행하고 있다. 남자와 여자는 각기 개성진리체로서 개체목적의 이르기 위해 인격을 도야하고, 실력을 쌓고, 체력을 연마하는 노력을 한다. 아울러서 인간은 연체로서 자신 외의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상호의존하고, 협동하며, 화합하면서 조화를 이루어 발전한다.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와 자녀를 위해, 아내는 남편과 자녀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 할 때, 그 가정에 안정, 평화, 기쁨, 행복이 찾아온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 이면서 개인의 성적 존재로서 성적 자기결정이 개인적, 사회적, 두 가지 측면에서 그 기준을 충족시켜야한다. 동시에 인간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성적 자율성과 존엄성에 입각한 개인의 주관적 선택에 따른 성적자기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가정공동체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는 모두 상호의존적 계층성에 의하여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사상에서는 위에서 소개한 여섯 가지 존재의 보편적 법칙은 각기 그 특성을 지닌 기능을 하지만 다른 법칙과 서로 연계되어 동시에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통일사상의 시각에서는 이중 어느 한 가지 법칙을 무시해도 성적자기결정권의 기준에서 벗어난다고 보는 것이다.

V. 나오는 글

기존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를 분석하고 그 한계점을 논의하고 그 대안으로서 통일사상의 시각으로 본 존재의 보편적 법칙에서 도출되는 성적자기결정권의 기준을 제안하면서 다양한 성적 일탈로 이어질 성행동을 예방하려는 논의를 하였다.

필자는 성행동이 사적문제가 아니라 공적문제라는 것을 강조한다. 성이 내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지만 그 내밀한 성행위와 성관계의 결과는 두 남녀와 가족, 그리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관계는 출발부터 둘이상의 관계이므로 개인이 아니라 성의 공동체로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적 행동이 아니라 공적 행동인 것이다. 성의 공동체 의미는 성의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성규범이 있어야하며, 그 성규범은 두 남녀가 반드시 따라야하는 성행동의 준거요, 이유요, 안내요, 방법인 것이다. 바로 그 성규범이 존재의 보편적 법칙에서 도출한 성적자기결정권의 기준으로 제안된 것이다.

기존의 반성폭력운동과 헌법상의 인간상에 기초한 성적자기결정권의 시각, 그리고 자유주의 철학에 기초한 성적자기결정권의 시각들의 한계점들을 지적한대로 객관적, 보편적 기준이 없는 성적자기결정권에 의한 성행동, 성관계는 가정과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붕괴시킬 수 있는 한계들을 지니고 있는 것을 논의하였다. 그 극복의 대안으로 보편적 법칙에

따르는 기준들을 제안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성적 질서와 안정을 모색하였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위에서 논의한대로 가정과 사회에 성적 질서를 파괴하고 안정과 평화와 발전을 저해하는 성행동, 즉 ‘성적자기결정권의 기준’을 벗어난 성관련 행위들은 근절되어야 할 대상들이다. 즉 보편적 기준을 벗어나면서 스스로 책임진다는 입장에서 다양한 성적자기결정의 성행동은 행위의 부당성을 인지할 수 있는 가치관교육으로 그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야할 것이다.

법적규제란 행위의 결과를 놓고 처벌하는 접근이지만 성가치관 수립을 위한 교육이나 운동은 성범죄를 일으키는 인간의 생각과 관련된 원인과 동기에 접근하는 것이다. 존재의 보편적 법칙에 따라 기준을 설정한 성적자기결정권은 ‘성적자기결정권’의 법적도입을 통하여 여성에 대한 강간, 성폭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성에 대한 성적 침해문제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은 우리사회에 다양한 범주와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으므로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인간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가치관수립을 위한 성적자기결정권의 기준을 논의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성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강운,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의미」, 『법학연구』, 제20집, 서울: 한국법학회, 2005.
- 김근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원중, 「청소년성문제의 이해와 지도」, 『교육이론과 실천』,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0.
- 김한경, 「가족의 출산건강 및 성문제에 관한 가족 복지적 개입전략」, 『한국가족복지학』, 창간호, 한국가족복지학회, 1999.
- 김효신·김인옥·안혜숙·임선영, 『결혼학』, 한국웨딩학회 편, 도서출판 구상, 2010.
- 노향옥,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상담 프로그램개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문상희, 「존재의 보편적 법칙에 따른 순결한 성의 구현」, 『종교교육학연구』, 30,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8.
- 문선명, 『평화메시지 10』, 서울: 성화사, 2007.
- 박광배, 『아동·청소년의 성적행위 결정능력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 박연미, 「청소년기의 개념화와 청소년의 성: 1990년대 이후 청소년보호정책을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13, 서울: 청소년문화연구소, 2006.
- 박혜진, 「형법상 성적자기결정권 개념에 대한 성찰」, 『법학연구』, 제23집, 서울: 한국법학회, 2006.
- 배영기, 『결혼의 역사와 문화』,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6.
- 신상숙, 「성폭력의 의미와 성적자기결정권의 딜레마」, 『여성과 사회』, 제13호,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1.
- 오생근, 「테칼트, 들뢰즈, 푸코의 육체」, 『사회비평』, 제17호, 서울: 사회비평사, 1997.
- 윤가현, 『성 문화와 심리』, 서울: 학지사, 2006.
- 윤가현, 「성과 성의식의 변화」, 『역사비평』, 겨울호, 2000.
- 앤 랜더스, 『10대 사랑과 순결의 대화』, 오경수 역, 서울: 가정 문고사, 1981.
- 이상돈, 「부부강간의 인정—남성주의와 여성주의의 사이」, 『월간 넥스트』, 9월호, 서울: 동녘, 1994.
- 정화열, 「생태학과 보살핌의 윤리」, 『녹색평론』, 7/8월호, 서울: 동녘, 1996.
-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서울: 성화사, 1993.
- 피터싱어 엮음, 『규범윤리의 전통』, 김성한·김성호·소병철·임건태 옮김,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5.
- 한국가족학회, 『가족학』, 서울: 하우출판사, 1999.
- Erich Fromm, 『사랑의 기술』, 황문수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2004.
- International Education Foundation, *Building Healthy Marriages*, Moscow: IEF, 2002.

원고접수 : 2012년 1월 9일 1차 심사 : 1월 25일 게재승인일 : 2월 13일

연구자소개 : 문상희

① 전공 : 신학, 교육학박사 / 소속 : 선문대학교 순결가정문화학과 교수

② 관심영역 : 교육학, 순결학, 성교육학

③ 주요논저 : 아름답고 고귀한 성, 순결학의 이념과 교육내용, 건강한 가족관계를 위한
심정과 규범의 성가치관교육, 모델이상 가족체계 안에서의 가족관계, 성
기관의 존재목적 중심의 성윤리 기준, 존재의 보편적 법칙으로 본 순결
한 성의 구현, 학교성교육에서 성가치관 교육의 제안

④ E-mail : sanghuy@sunmoon.ac.kr

Abstract

**The Standards for Individual Decisions about Sexuality
Based on the Universal Law of Existence:
From the Perspective of Unification Thought**

Moon, Sanghuy

Sun Moon University

Individual sexuality is the expression of one's own character, and is connected with the order of the family and society. Without universal and objective standards, deviate sexual intercourse and behavior cause broken families and disorder in socie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olve the various sexual problems connected with individual decisions about sexuality through establishing a basis for sexual solutions in our society. This paper also introduces the universal principles of sexual norms and suggests reconstructing the meaning of individual decisions about sexuality based on the universal principles of sexual norms. Especially, this paper inquires into what problems are related to individual decisions about sexuality from the viewpoint of the standards of sexual norms. Let us understand the fact that sexual intercourse ignoring the sexual norms based on the universal principles creates sexual deviations, broken families and disorder in society. Moreover, this paper intends to protect against sexual deviation and establish healthy and optimistic sexual consciousness and attitudes according to the universal standards of individual decisions about sexuality.

Key words: Universal Law of the Existence, Individual decisions about sexuality, Sexual attitudes, Objective Standards